

여수박람회장 ‘대박’ 매각 아닌 재투자로 사후 활용 극대화를

올 300만 관람·수익 50억 돌파

사후 활용 방안이 안갯속인 여수세계 박람회장이 전남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 나면서 정부도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만 고집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투자를 통해 박람회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폐막 후 지금까지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지난 2013년 190만 3903명, 2014년 223만4237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현 추세라면 올해 300만명 돌파도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람객을 이끄는 요인은 박람회 기간 중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아쿠아리움과 빅오쇼가 단연 으뜸이다. 국내 최고인 600t급 수조에 흰고래(벨루가) 등 300여종 3만4000여마리의 희귀해양생물을 보유한 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은 지난해 100만을 기록한 데 이어 9월 이미 87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최고 해상 분수쇼인 빅오쇼 역시 2014년 15만명에 이어 올해 13만명이 찾았고, 시멘트 저장고를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내는 스카이 타워를 다녀간 관람객 수도 13만7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미래해양과학콘텐츠로 구성된 박람회 기념관은 이미 5만명 넘게 다녀갔다.

수익도 급상승 중이다. 빅오쇼와 스카이타워, 박람회 기념관 등에서 벌어들인 관람수익은 지난 2013년 24억원에서 2014년엔 48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23일 현재 이미 50억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관람객 증가는 박람회 개최로 인한 여수의 인지도 상승, 기존 교통·숙박시설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오동도·해상케이블카·항일암 등 다양한 관광자원, 지역주민의 서비스 향상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박람회장 투자는 여전히 인색한 수준이다. 여수시와 전남도가 박람회장 내에 각각 180억원과 400억원으로 청소년해양교육원과 복합해양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요청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올해 청소년해양교육원 설계비 4억원 가운데 1억원을 배정했을 뿐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박람회장 매각만을 고집해 온 정부는 지난 3년간 3차례나 공모를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후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과 요구에 일부 구역 장기임대 방안 등을 포함한 사후활용 계획 변경안을 지난 6월 확정해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투자 없이 는 이 같은 박람회장의 인기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 관계자는 “정부가 애초 약속대로 박람회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활용방안을 찾아 투자금의 몇 배 가치를 창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은빛 가을 은륜 축제 두 바퀴로 달려서 시원한 강바람과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2015 그린(Green) 자전거축제 대행진’ 행사가 25일 영산강 자전거길 일대에서 열렸다. 동호인 등 시·도민 1000여명이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역새 물결 사이를 달리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을 가뭄, 전남도 심상찮다

전북과 충청, 경기지역의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전남의 저수율 역시 지난 2009년 이후 6년만에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강수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남 중북부지역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일부 구역 장기임대 방안 등을 포함한 사후활용 계획 변경안을 지난 6월 확정해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투자 없이 는 이 같은 박람회장의 인기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남의 누계 강수량은 1055.3mm로, 지난해 1288.9mm 그리고 평년 수준인 1367.2mm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전체 저수율은 47.1%를 기록, 지난해 74%와 평년 75%보다 27~28%p 하락했다. 특히 전남 중

저수율 50% 아래로 떨어져
가뭄 지속 땀 내년 농사 걱정

북부지역의 나주호,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등 4대호의 저수율은 31.7%로, 30%대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4대호의 평년 저수율은 64.7%, 지난해 저수율은 49.3%였다. 담양호의 현 저수율은 1771만1000t으로 계획 저수량(7667만t)의 23.1%에 그쳤으며, 광주호의 현 저수율은 459만t으

로 계획 저수량(1520만t)의 30.2%에 불과했다. 가장 넓은 장성호는 3200만 4000t으로 계획 저수량(9970만2000t)의 32.1%, 그리고 나주호는 4016만7000t으로 계획 저수량(654만4000t)의 37.7%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평년 수준인 420mm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전남 남부지역을 제외한 중북부지역은 내년에 가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내달 확정된다

예산 114억 국회 교통위 통과
시, 사업비 줄이기 워크숍 개최

예산사업비 증액으로 타당성 재조사 우려에 직면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계획이 내달 말 최종 확정된다.

광주시는 다음달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한 설계 VE(Value Engineering·가치공학) 2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워크숍 등에

서 나온 사업비 증감의 제안사항 채택 여부를 다음달 중순께 결정할 뒤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계획을 확정해 같은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차량규모 확대, 정거장 형식 등의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지난 3월 중단됐던 기본 설계 용역이 9개월만인 오는 12월까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 중단된 차량선정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실시설계에 들어

가 이르면 2017년말이나 2018년 초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22~23일 사업비 절감 아이디어 발굴과 대안 개발을 위해 설계 VE 1차 워크숍을 했다. 시는 분야별 공무원으로 TF를 구성하고 도시철도 설계·시공·운영에 경험 있는 공무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인천시의 설계 VE 노하우를 응용하고 서울시 자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남구, 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km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고가에서 땅을 파고들어가는 저심도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사유로 사업비가 애초 정부 승인액 2조93억원(2014년 기준)에서 2조30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시는 승인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 시는 사업비 절감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내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산 114억5000여만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했다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이 25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여행

버스투어(2박3일)

상품가격	완도, 여수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여행 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발 7식, 목포발 6식)
선박정보	블루나래호: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호: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 본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시간: 광주출발: 15:45 제주출발: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할인 제주숙소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기준] 주중 17,000원 / 주말 23,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기준] 주중 19,000원 / 주말 26,000원
카니발, 그랜저스타렉스	[24시간 기준] 주중 39,000원 / 주말 49,000원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1일차

목포 or 완도항 출발 → 제주항도착 → 비빔밥만들기체험(목포출발 제외) → 천연염색체험 → 메아리체험(제주오름 트레킹) → 저녁식사(갈치조림) → 숙소

2일차

숙소 → 한라산 완전정복(성판악-백록담 코스 / 중식 도시락) → 해수사우나 → 저녁식사(흑돼지구이) → 숙소

3일차

숙소 → 세계유네스코 등재 수월봉, 차귀도 탐방 → 점심식사(해물전골) → 조랑말승마체험 → 더마파크 기마공연(완도출발 제외) → 농수산물 직판장 → 제주항 → 목포 or 완도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1일차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도착 후 렌터카 인수 → 자유일정 → 숙소

2일차

자유일정

3일차

숙소 → 자유일정 → 제주공항 도착 및 렌터카 반납 → 광주공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